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운전자의 인적 요인

권 기 동 교통안전공단 교수

1903년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로 고종황제 전용의 승용차(Adilla)가 도입된 이후 1996년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955만대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10년간은 급속히 증가하여 1985년 10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7년만인 1992년에는 500만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900만대에 이른 데 이어 금년 5월에는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이 가능하였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도 자동차 증가에 비례하여 엄청나게 늘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현실에 있다. 가장 최근의 공식통계인 '95년 자동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1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8,865건이며, 이로 인해 10,323명이 숨졌고, 희생자의 약32배에 달하는 331,747명이 부상당하여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衣食住의 시대에서 衣食住交의 시대를 맞으면서 자동차 교통이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는 새로운 인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부르는 요인은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를 비롯한

사람, 그리고 도로·환경 등 세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운전자 요인은 거의 모든 교통사고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교통사고예방 또는 감소대책에 운전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도, 규제 등의 사항들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리고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도, 훈련, 그리고 규제가 행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운전자의 신체, 생리, 심리, 적성, 습관, 태도 등에 따라 안전하고 빠르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무튼 여기서는 복잡한 이론의 전개를 떠나 평이하지만 운전자가 꼭 알고 대처해야 할 「교통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주요한 운전자 요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산만한 마음가짐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마음이 없으면 보여도 볼 수 없고 들려도 들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우리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더라도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지 못하여 부주의하게 되면 운전조작과정을 빠

뜨리거나 오조작하여 교통사고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음의 이완·해이, 주의력과 양보심의 부족, 감정의 고조, 자만심 등이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산만한 마음가짐이 된다.

가. 마음의 이완·해이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매너리즘에 의해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는 것이다. 운전자는 누구나 긴장이 풀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피곤해지면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멍해지거나, 흔히 말하는 어렴풋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 추돌사고의 전형적인 예이다.

운전경력이 많거나 도로에 익숙한 운전자 중에는 간혹 '이 정도는 눈감고도 운전할 수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렇게 하고서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운전에만 임하면 항상 운전이 필요한 정보와 운전조작에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불필요한 다른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나. 주의력과 양보심의 결여

운전행태는 운전자의 성격 등에도 기인하지만, 마음가짐과 마음자세에서 아주 달라진다. 어떤 내용의 사고이든 사고의 당사자는 운전자이므로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자각하는 마음과 주의력 집중, 상대방을 배려하는 양보심 발휘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꺾어진 골목길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위험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급정지할 것인가? 핸

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 피할 것인가?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이 교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곳은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통행우선권을 양보한다는 자세로 주의력을 집중해 가며 서행하였다면 급정지나 위험한 방향전환 없이 여유있게 정지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운전자는 항상 주의력을 집중하고 내가 한번 더 양보한다는 여유있는 마음가짐으로 운전이 임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다. 감정의 고양

평상심을 잃고 감정이 고조되면 교통상황의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난폭운전, 과속, 무리한 추월 등으로 이어지고 사고로 연결된다. 운전중 지리한 정체 상태에 빠져버리거나 무리한 끼여들기를 당하여 화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칫 사고로 연결되면 결국 운전자 자신의 손해이므로 운전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항상 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서두름, 초조함

차에 타면 어느 누구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두르는 심리에 지배되기 쉽다. 그러나 서두르거나 초조해 하면 감정이 고양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난폭운전, 과속, 무리한 추월 등을 불러와 결국 사고로 연결되기 쉽다. 그리고 서두른다고 목적지에 그만큼 빨리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운전자가 서두르는 만큼 사고도 서둘러 운전자를 맞이할지 모를 일이다. 운전자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임해야 한다.

마. 자만심

뒷유리창에 부착되었던 초보운전표지가 떨어지고 운전경력이 쌓여 가면서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면 운전자는 놀랍게도 사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기도 모르게 해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슬금슬금 속도도 내어보고 요리조리 운전솜씨를 자랑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운전자가 빠지기 쉬운, 사고라는 괴물이 파 놓은 함정이다. 초보자든 경력자든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운전솜씨를 자랑하는 지나친 자만은 금물이다. 언제나 안전운전, 방어운전만이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불안정한 운전태도가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사고의 배경을 찾아보면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안전 운전에 대한 태도가 결여되어 위험을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한 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안전운전에 대한 태도가 결여되면 추측운전, 난폭운전, 그리고 안전확인 생략 등을 초래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가. 추측운전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운전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저쪽 도로에서는 사람과 차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든가, '앞차는 급정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자신에게 편리한대로 예상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추측은 운전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단정지, 좌우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하게 하거나 생략하게 한다. 그러나 추측은 종종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사고가 발생된다.

운전자는 동일장소, 동일시간대일지라도 교통상황은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급한 추측운전을 삼가야 한다.

나. 난폭운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급출발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켜고 동시에 급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운전자를 자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앞에 「급」자가 붙은 난폭운전은 자신은 물론 제3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앞에 「급」자가 붙은 난폭운전은 반드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부드러운 출발·정지, 안전한 주행에 힘써야 한다.

다. 확인의 생략

안전운전을 위한 제1의 조건이 잘 보고 자주 확인하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안전확인을 게을리 하여 사고로 연결되는 예가 많다. 첫 출발부터 안전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후진시에는 차에서 내려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운행중 에도 운전 조작을 하기 전에 한 호흡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조급한 성격을 가진 운전자의 경우 안전을 확인한 뒤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확인행위와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신속한 동작보다는 정확한 확인이 앞서야 한다. 한

호흡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근심, 고민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사고원인을 조사해 보면 '다른 일이 마음에 걸려 부주의 하였다'든가, '고민거리를 생각하다가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았다'라는 예가 자주 있다.

운전자가 운전중에 근심이나 걱정거리를 떠올리게 되면 운전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보아도 운전이 필요한 것이 인지되지 않고 정확한 운전조작이 불가능하게 된다. 운전자가 갖고 있는 근심이나 고민거리가 운전하는 중에 나타나게 되면 그는 이미 사고의 문턱에 다가서 있는 것이다. 직장, 가정, 운전자 개인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근심, 고민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가. 직장의 문제

안전운전에 필요한 심신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가 직장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중한 일생의 상당 부분을 직장에서 보낸다. 이런 직장에서 고민과 불만이 생기면 안전운전에 큰 악영향을 받게 된다.

직장에서 받는 가장 많은 고민거리는 상사, 부하, 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업무성과 달성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므로 평소 직장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즐거운 직장생활이 지속되고 운전할 때는 직장 일로 고민하지 않게 되며, 이것이 교통사고 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직

장 생활이 스트레스 없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건강한 생활의 활력소로 소화하는 슬기를 스스로 발휘해야 하며, 경우에 따 라서는 직장내의 조언과 협조를 구해 걱정거리는 빨리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운전석에 앉아서까지 그 문제로 고민하며 사고를 불러와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나. 가정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고 이것이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은 오늘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한 활력을 되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무사고 운전자에게 그 비결을 물어 보면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화합과 협력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가정이 평온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드는 경우가 많다.

이로부터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운전에 전념할 수 없는 큰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기 전에 가정에 충실하여 가족 구성원들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안전운전, 무사고운전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다. 개인의 문제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외에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도 있다. 개인의 문제에는 장애에 대한 고민과 건강, 금전 등 여러가지 문제가 포함된다. 일반운전자도 예외는 아니지만 직업 운전자의 경우, 이 중 제일 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것 중의 하나

가 월급의 문제이다.

직업 운전자가 도박을 하게 되어 가족 몰래 월급에 손을 대거나 빚을 얻어 쓴 다음 심하게 추궁당하게 되면, 운전 중에도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걱정되어 멍청해지거나 또는 깜빡하게 되어 운전조작의 단절이 일어나 사고로 연결되고 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유형의 개인 문제는 그 어느 문제보다도 그 스스로 예방하고 풀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으면 혼자서 해결하기 곤란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면 가족의 이해와 협조 또는 누군가의 상담과 조언을 구해 문제를 속히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평소 사생활을 깨끗하게 관리할 일이다.

4. 나쁜 습관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개인이 갖고 있는 습관에는 안전운전에 좋은 습관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습관도 있다. 미안하면 머리를 긁적이는 사람, 할 일 없이 손톱을 물어 뜯는 습관을 가진 사람, 대화 중에 손을 매만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정도의 습관은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운전상의 습관은 전혀 다르다. 나쁜 운전습관은 상대와 자신을 위협에 빠뜨려 교통 안전을 위협한다.

운전자가 가진 습관 중 나쁜 것으로는 특별히 바쁜 일도 없으면서 급출발하는 습관, 차간거리를 바짝 좁혀 운전하는 습관, 함부로 경적을 자주 울리는 습관,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습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제도와 법으로 운전자들의 이런 나쁜 습관이

다스려지고 있지만,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진 운전자 스스로가 신호·지시를 잘 지키는 습관, 양보하는 습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고쳐 나가야 한다.

5. 인지, 판단, 운전조작의 오류가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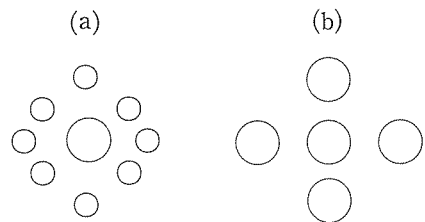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교통장면에 대응하는 과정은 [인지 - 판단 - 조작]의 과정이다. 이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첫번째인 인지의 과정이다. 물론 판단의 과정이나 조작의 과정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안전운전이 됨은 당연하다.

가. 인지의 오류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눈을 지각하지만 이렇게 획득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착각이라고 하는데 이 착각은 언제라도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갖는 문제이다.

〈그림〉을 보자. (a)의 가운데 있는 원과 (b)의 가운데 있는 원의 실제 크기는 같지만 (a)의 가운데 있는 원이 (b)의 가운데 원보다 크게 느껴진다. 느끼는 크기가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한편 운전자 중에는 커브 길에서 현재의 속도



라면 핸들을 조금씩 천천히 꺾어도 충분하겠지만 진입한 커브가 의외로 심한 커브여서 당황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운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시각적 착각의 전형적인 예인데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 안전운전요령이다.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운전자는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판단의 오류

사람은 인지의 실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에도 잘못이 많이 있다. 특히 운전자는 속도판단의 오차가 크기 때문에 속도판단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등에서 장시간 운전한 후 인터체인지에 들어설 때 고속도로 주행시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전중에 느끼는 속도는 속도계에 나타난 속도에 비해 느리다. 객관적인 속도는 빠르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속도는 느리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감의 오차는 사고로 연결되기 쉽다. 운전중에는 자주 속도계의 속도를 확인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조작의 오류

자동차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한손으로 운전하는 것과 비스듬히 앉아 운전하게 되면 정확한 운전조작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핸들을 놓치거나 잘못 꺾게 될 뿐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

레이터를 밟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핸들을 바르게 잡고 좌석의 높이, 운전석과 운전대와의 거리를 자신의 신체에 적절하게 조절하여 올바른 운전자세를 갖추는 것이 운전조작의 오류를 막는 기본이다.

6. 자기관리 태만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

운전자의 심신이 건강해야 안전운전이 이루어진다. 심신의 상태가 양호하면 활력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주의력이 높아진다. 이로써 운전 조작의 생략이나 단절, 그리고 잘못된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 자신이 자기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항상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자기관리 태만에서 오는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가. 건강관리

성인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점점 저하되고 여러가지 건강장애도 많아지게 되므로 평소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신적, 육체적 노동량이 많은 자동차 운전자는 건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운전중에 건강이상으로 위험에 빠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운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고령 운전자나 직업 운전자, 그리고 오랜 운전 경력을 가진 운전자 중에는 요통, 신경통, 위장병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 요통, 신경통

차의 운전은 앉은 자세가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요통, 신경통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세로 운전하는 것과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체조 등을 하여 피로를 풀어 주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 위장병

운전자의 경우 아무래도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의 질병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욕이 감퇴하고 위의 상태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운전을 뒤로 하더라도 식사를 뒤로 하지 않는 운전자의 건강 관리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졸음을 피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커피도 지나치면 위의 상태를 나쁘게 한다. 세수나 휴식 등 다른 방법으로 졸음을 쫓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수면부족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수면부족은 인간의 생리적 리듬을 뒤틀리게 하고, 대뇌의 활동 수준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졸음운전을 불러와 눈감고 운전하게 하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

미리 많이 자서 잠을 축적해 둘 수는 없지만 수면부족을 회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적어도 3일 정도의 수면부족이 계속되면 다음날은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다. 운동부족

정신적·육체적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운전은 그다지 운동량이 없기 때문에 직업 운전자는 운동부족과 체력의 저하를 피할 수 없고 이 상태로 해를 거듭해 가면 심장병, 고혈압, 요통, 어깨 통증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운동 부족에 빠지지 않도록 간단한 걷기, 체조하기로 부터 출발해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스로 건강을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라. 여가활용

오늘의 피로를 풀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정만 취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텔레비전 앞에서 빈둥거리며 하루 종일 너무 자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 취미 활동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이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인적 요인에는 산만한 마음가짐, 불안정한 운전태도, 근심과 고민, 나쁜 습관, 인지-판단-운전조작의 오류, 자기관리의 태만 등이 있다. 교통사고를 불러오는 이런 인적 요인들을 법이나 사회규범 만으로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운전자가 스스로 자가점검해가며 안전운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지고 이를 행동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한다